

# “태풍 피해고객 힘내세요” 카드사, 착한 금융지원 마련

고객 피해 줄여야 카드사 타격 ↓  
관공서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결제대금 청구 유예, 무이자 등 지원

카드사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태풍,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드 이용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카드사들이 입는 타격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우리·KB국민·현대·BC·하나 등 주요 카드사들은 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별금융지원을 받으려는 고객은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한카드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청구유예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피해회원에게 발생한 연체 건에 대해서도 피해 접

〈카드사 태풍 피해 금융지원 방안〉

카드사	9호 태풍 ‘마이삭’ 피해금융지원	
하나카드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최대 6개월 동안 채권 추심 중단	10월 30일까지 신청한 신규 신규로 신청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자 30% 인하
삼성카드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 무이자 납부 9월말까지 모든 업종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할부 지원	9월말까지 신청한 신규 신규로 신청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자 30% 인하
현대카드 (9~10월 발생한 태풍도 동일지원)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	11월까지 태풍 피해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하면 30% 인하
우리카드 (10호 하이선·에도 동일지원)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	미결제대금 상환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 삭제
비씨카드 (10호 ‘하이선’에도 동일지원)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 유예	
KB국민카드	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9월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 30% 할인
신한카드	피해 회원,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일시 청구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분할 납부	

수 후 최대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중지하도록 한다.

KB국민카드는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건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로는 분할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하나카드도 다음달 말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청구유예하며,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간 채권추심을 중단한다.

삼성카드 역시 피해 고객에게 결제대금에 대해 최장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 모든 업종에서 카드 결제시에도 최대 6개월 무이

자할부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현대·비씨카드는 마이삭뿐 아니라 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도 청구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현대카드는 다음달까지 발생하는 모든 태풍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이같은 고객 피해 금융지원이 결국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면, 신용도 하락과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금융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풍 피해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카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달 ‘KB국민 행복한 대구·경북 티타늄 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에서 이번에 선보인 신용카드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은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혜택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대구·경북 지역 고객들의 이용이 잦은 식당, 슈퍼마켓 등 지역 밀착 가맹점에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구·경북 지역 고객들의 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신한카드, 핀테크와 신용평가모델 개발 착수

개인사업자 시장 진출 강화  
B2B 고객 컨설팅 사업 등  
대안평가 시스템 개발 완료

신한카드는 대안신용평가 플랫폼 크레파스, 맞춤형 자산관리 플랫폼 한국금융솔루션 등 혁신금융사업자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CB(Credit Bureau)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자체 상품인 ‘마이크레딧(My CREDIT)’으로 개인사업자의 CB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유한 결제 빅데이터와 여신관리 업력에 대안신용평가 플랫폼 등 이중 핀테크사의 신용평가 역량을 결합해서, 차별화한 신용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여기에 B2B

고객을 위한 컨설팅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기존 CB시장 보다 폭 넓은 사업라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신한카드는 대안신용평가인 크레파스와 함께 신한카드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대안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인 신한파이낸스에 글로벌 평가모형을 도입했으며, 씬파일러(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 고객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자산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금융솔루션과 공동 기획해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금융플랫폼 ‘핀셋익스펫’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실증사

업에도 공동 참여해 소상공인의 금융편의 증대를 위한 서비스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신용조회업을 준비중인 더존 ERP(전자적 자원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법인카드를 발급하는 등 혁신금융사업자와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혁신금융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CB와 비금융 CB 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용평가업에서 차별화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신한카드가 추진하는 개인사업자 CB사업이 신용정보 사업분야에서 지속적 발전과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 신한銀 AI·RPA 활용 자금세탁방지 프로젝트

자금세탁방지 위험도 측정 모델 개발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로보틱 처리자동화(RPA)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국내의 감독기관의 강화된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업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됐다.

먼저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업무에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해당 업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거래 보고 대상을 선정했으나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모델을 개발해 고위험 의심거래 탐지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정보 수집에 RPA를 도입해 금융정보의 수집 및 정리 업무를 자동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Dash-Board)를 설계해 보고 체계를 효율화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한은행의 노후가 축적된 AI 및 RPA 기술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레그테크 강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및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하나은행

### ‘일달러 외화적금’ 출시

하나은행이 해외 주식투자와 관련해 직접 주식 계좌에 이체하고 자동이체와 환율알림 기능으로 자산관리까지 가능한 ‘일달러 외화적금’을 출시했다.

일달러 외화적금은 가입기간 6개월로 매월 최대 미화 1000달러까지 횡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며 5회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현찰수수료 없이 달러지폐로 바로 찾을 수 있고, 손님이 지정한 환율을 알려주는 환율 알림 기능으로 똑똑한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가입은 개인에 한해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난 7일 열린 광주PB센터 WM복합점포 개점행사에서 (왼쪽부터)KB증권 서부지역본부장 전현호 상무와 KB증권 김방현 광주PB센터장, KB국민은행 박기례 호남4(광주)지역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 KB금융, 광주PB센터 WM복합점포 오픈

기업금융·기업대출 등 원스톱

KB금융그룹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광주PB센터 WM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자산관리(WM) 복합점포는 총 74개로 늘어났으며, 기업투자금융(CIB) 복합점포 9개를 포함해 총 83개의 복합점포망을 보유하게

됐다.

광주PB센터 WM복합점포는 KB금융의 두번째 브랜치인브랜치(BIB)형 PB센터다. BIB형 PB센터는 기존 PB센터 WM복합점포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반영업점 WM복합점포에서 제공하던 기업금융 및 기업대출 업무까지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상미 기자 smah1@

## 김광수 회장 ‘그린코리아 펀드’ 가입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는 8일 김광수 회장(사진)이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국내주식형 ESG 상품인 ‘NH-아문디(Amundi)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농협금융 계열사인 NH-아문디자산운용에서 지난 3일 출시했다. 기업의 재무요인 외에 지속가능성을 ESG 측면에서 분석해 투자한다. 특히 개선과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린(환경) 테마에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5G, 2차전지, 수소·전기차, 등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